

전국 언론인 광주서 오월정신 되새겨

광주전남기자협회 '민주역사기행' 진행 5·18 진실 알리고 전국화 위해 마련

광주전남기자협회(회장 최권일)는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전국 언론인 초청 5·18민주화운동 민주역사기행'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전국 언론인에게 5·18민주화운동의 올바른 진실을 알리고 역사 왜곡 근절에 동참하는 것은 물론, 5·18 정신의 전국화를 위해 마련됐다.

한국기자협회를 비롯한 산하 대구·경북과 경남·울산, 경기·인천, 강원, 제주, 전북 등 전국 기자협회 회원 30여명이 참석했으며, 코로나19 재유행으로 각 협회 임원 중심으로 인원을 제한했다.

행사 첫날인 13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공동저자인 전용호 광주시 상임인권옹호부장을 초청해 5·18민주화운동의 배경과 역사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다.

다음날인 14일에는 김동훈 한국기자협회 회장 등 참석자들은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합동 참배했다. 한국기자협회 산하 전국 지역기자협회 회원들의 공동 참배는 올해가 처음이다.

이후 1980년 당시 제20대 한국기자협회장으로 재직하면서 당국의 보도지침을 제작거부로 맞선 고 김태홍 고문



김동훈 한국기자협회 회장(왼쪽 다섯 번째), 최권일 광주전남기자협회 회장(/ 두 번째)을 비롯한 전국 기자협회 회원 30여명이 14일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합동 참배를 하고 있다. <광주전남기자협회 제공>

과 제2 묘역, 옛 묘지도 찾아 유공자와 민족·민주 역사를 기렸다. 참배를 마친 참가자들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4인 1개 조로 나뉘어 5·18민주화운동기록관과 전일빌딩245, 5·18민주광장, 옛 전남도청 등 80년 5월 당시 역사 현장을 방문했다.

강승규 대구경북기자협회 사무국장은 "역사를 단순히 듣고 배우는 것과 실제 현장을 찾아 눈으로 보고 느끼는 것은 확연히 다르다"며 "대구·경북 언론인을 대상으로 5·18

민주화운동 역사투어를 추진하는 등 올바른 역사를 알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 광주전남기자협회 회장은 "역사를 기록하고 진실을 알리는 전국의 기자들에게 5·18에 대한 진실과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며 "전국의 매체를 통해 광주의 5월을 알려 5·18의 전국화에도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수영 기자 swim@kwangju.co.kr

전남서부권아동보호기관, 교통안전 캠페인 동참



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임광목)이 최근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 운전자와 교통안전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캠페인이다.

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이화진 목포서해초등학교 교장의 추천으로 캠페인에 참여했다.

임광목 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가정의 달에 어린이의 안전한

교통 문화를 알리기 위한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어 뜻깊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이가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교통 문화 정착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임 기관장은 다음 챌린지 참여자로 이기석 근대이비스 좋은마음센터 전남동부지부장, 유기용 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장, 강성규 전남북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장을 지목했다.

/유연재 기자 yjyou@

실패했던 접착제 혁명 '포스트잇' 발명가 실버 별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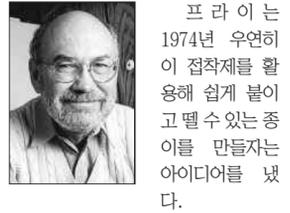
세계적인 문구용품 '포스트잇'을 발명한 화학자인 스펜서 실버가 최근 별세했다. 향년 80세.

실버가 발명한 포스트잇은 20세기 창의적인 발명품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 꼽힌다.

실버는 1968년 3M에서 초강력 접착제를 만드는 작업을 했지만, 접착력이 약한 풀을 만들면서 실패했다.

실버가 만든 접착제는 접착력이 기대만큼 강하지는 않았지만 끈적임이 없고 표면에 잔여물을 남기지 않는 특성이 있었다. 그는 어중간한 접착력의 이 화학제품을 어떻게 상품화할지 고민하면서 '문제 해결중심 용액'이라고 불렀다.

답을 찾은 주인공은 실버의 동료인 아트 프라이였다.



프라이는 1974년 우연히 이 접착제를 활용해 쉽게 붙이고 뗄 수 있는 종이 만들자는 아이디어를 냈다.

교회 성가대원이었던 프라이는 찬송가 책에서 부를 곡 페이지에 종이 책갈피를 끼웠는데 책을 펼칠 때마다 책갈피가 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선 실버가 전에 만들었던 접착제를 사용할 생각을 했다.

결국 실버와 프라이는 붙였다 뗄 수 있는 종이를 개발했고, '프레스 앤 필'이라는 이름으로 1977년 상품화됐다. /연합뉴스

광주 초록우산, 청소년활동진흥센터·아동청소년의회와 업무협약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김은영)가 최근 광주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센터장 문수영), 광주시 아동청소년의회와 협력 강화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들 기관은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정책 논의, 정보교류, 청소년 정책제안 시스템(청소년 1번가) 활용, 교육활동, 홍보활동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김은영 광주지역본부장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 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보다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다"며 "아동권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함께 아동복지사업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동신대 상담심리학과 최진아 교수

한국상담학회 광주전남학회장 선출



동신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최진아 교수가 한국상담학회 광주전남상담학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오는 2022년 12월31일까지 2년이다.

한국상담학회는 한국 상담 및 정신 건강 분야의 대표적인 학회로 현재 3만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돼 있다. 한국상담학회 산하 광주전남상담학회에는 20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최 교수는 "상담자들의 전문성과 위상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지역 상담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채희중 기자 chae@

TV프로그램

17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0 걸어서 세계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부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생방송 오늘 아침	15 KBC 모닝와이드 35 모닝와이드 3부
8	25 시청자와 함께 30년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15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2~3부	50 밥이 되어라(재)	35 아모르파티
9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45 KBS 뉴스		30 930 MBC 뉴스 45 5.18 41주년 특별생방송 랜선오월길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속아도 꿈결(재) 40 지구촌 뉴스	45 손현주의 간이역 스페셜	10 SBS 뉴스 30 특집 살맛나는 오늘
11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이슈 픽 쌤과 함께 스페셜	00 오월의 청춘(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0 시크릿 주주 별의여신 50 뽀빠리 친구친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행복특집 알짜배기
1	00 네트워크 공동기획 문화스케치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20 트래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50 연중 라이브(재)	20 헬로키즈 글로벌 동물 뉴스 50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2 30 KBS광주 열린마당(재)			00 뉴스브리핑
3	35 미니다Q(재)	00 KBS 뉴스타임 10 뽀빠리 30 TV 유치원	20 이 맛에 산다	
4	00 사사건건	00 세상의 모든 다큐(재) 50 류수영의 동물티비(재)	00 기본 좋은 날(재)	00 좋은아침 스페셜
5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	50 통합뉴스룸 ET	00 5 MBC 뉴스 15 차총우돌 만국 유랑기 캠핑 인 코리아	00 SBS 오뉴스 35 KBC저녁뉴스 50 창사특집 내고향 전파(재)
6	00 시청자와 함께 30년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10 5.18 41주년 특별생방송 랜선오월길	50 닥터 365 55 시사타치! 따따부따(재)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우리말 겨루기	50 미스 몬테크리스토	10 밥이 되어라 5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8	30 속아도 꿈결	30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3		30 KBC 8 뉴스
9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30 오월의 청춘	20 안싸우면 다형이야	00 생활의 달인
10	00 가요무대	40 개는 훌륭하다	50 5.18 특집 다큐영화 김군	15 동상이몽 2는 내운명
11	00 더 라이브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55 나이트라인
12	10 다큐 온(재)	10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통합뉴스룸 ET	25 스포츠 매거진	25 양코르 내고향 전파 스페셜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20 마사와 곰
05:50 한국기행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35 오드북, 이상한 아이들
06:1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글로벌 뉴스	17:45 최고대! 호기심까지
07:00 낭랑과 나라, 코코몽	12:10 아주 특별한 기행 - 한국을 담다	18:00 생방송 방과 후 토크
07:15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13:00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	19:05 드래곤 길들이기: 세상 끝으로
07:30 두다다콩	14:10 EBS 다큐프라임	19:35 자이언트 팽TV
07:45 숲속 배달부 빙빙	15:05 지식채널e	19:50 다큐영화 길 위의 인생
08:00 덩동맹 유치원	15:15 클래스e	20:40 세계테마기행 1~2부
08:30 출동! 슈퍼윙스	15:35 EBS 비즈니스 리뷰 플러스	<가차 타고 세계로 -느리게 행복하게, 일본 시골 열차>
08:45 방구대장 뽀빠이	15:50 가만히, 10분	21:30 한국기행
09:00 뽀뽀뽀 뽀로로	16:00 우당탕탕 은하안전단	<리틀 포레스트 하실래요? 1부 우리 '탈서' 했다>
09:15 세계의 비밀 수호대 번개맨	16:15 개구쟁이 조이	21:50 EBS 다큐프라임
09:30 마사와 노래왕	16:30 덩동맹 유치원(재)	22:45 신계속의 맛터사이클 다이어리
09:40 우리집 유치원	16:50 내 친구 문덕이	
10:30 한국기행(재)	17:00 EBS 뉴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17일(음 4월 6일 乙丑)

<p>36년생 확인을 하는 습관이 절실할 때이다. 48년생 힘은 들겠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되리라. 60년생 귀인과 소중한 인연을 맺게 되는 날이다. 72년생 지난날에 쌓아 온 성과가 빛을 보는 날이다. 84년생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는 법이다. 96년생 전후 사정을 파악해 보고 나서는 것이 무리가 따르지 않는다. 행운의 숫자 : 28, 96</p>	<p>42년생 통례적인 절차에 따르는 것이 이로우리라. 54년생 원칙을 무시하고 대충대충하는 괴로움 수가 있다. 66년생 내키지 않는다면 굳이 행할 필요도 없느니라. 78년생 집다 함을 차치해야만 길조를 상수 시킨다. 90년생 원인이 파악된다면 지체 없이 처리하라. 02년생 조금씩 성과가 나타나면서 진전을 보이는 시기이다. 행운의 숫자 : 47, 58</p>
<p>37년생 작은 것에 눈이 어두워 큰 것을 잃을 수도 있느니라. 49년생 쉽게 기회가 오지는 않을 것이니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겠다. 61년생 소모적인 요소는 빨리 떨쳐버리는 것이 좋다. 73년생 종류는 같지만 전혀 다른 것이니 구분을 잘 해야겠다. 85년생 폭염 속에서 폭우가 쏟아짐에 비유할 만하니, 97년생 시급하다. 행운의 숫자 : 45, 81</p>	<p>43년생 의사 표시가 정확해야만 착오가 생기지 않는다. 55년생 거의 대동소이하니 일괄 처리해도 된다. 67년생 지금 도모하지 않는다면 침체하게 된다. 79년생 진솔하게 털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91년생 상대의 의사를 수용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03년생 단기간 지연 될 수도 있으나 분명히 성사는 되는 태양이다. 행운의 숫자 : 29, 68</p>
<p>38년생 일순간에 성과가 반할 수도 있는 형세이다. 50년생 식권이 풍부한 이의 조언을 참고하는 것이 좋다. 62년생 구간을 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다. 74년생 앞사건이면 역효과를 초래하라. 86년생 상호 증진을 위한 아픔일 것이니 기꺼이 감수하라. 87년생 이미 모든 것이 다 끝난 판세이니 아무런 소용이 없다. 99년생 오랫동안 고민해 왔던 난제들이 하나하나 해결 될 것이니라. 행운의 숫자 : 36, 97</p>	<p>32년생 혼동 되지 않도록 체계를 잡아서 처리해야겠다. 44년생 길흉이 혼재하면서 변화무쌍함을 보일 것이다. 56년생 지금 주어진 여건에 최선을 다해서 주력하는 것이 지당하다. 68년생 때를 맞추어야 제대로 효과를 본다. 82년생 중대사와 연결 될 소지가 있다고 본다. 94년생 예정 되었던 것은 차질 없이 들어오겠다. 행운의 숫자 : 12, 94</p>
<p>39년생 분수를 지키려면 흥사를 비껴갈 수 있다. 51년생 내 부족한 문제부터 해결하라. 63년생 앞날이 환히 열리는 계기가 조성된다. 75년생 상호 증진을 위한 아픔일 것이니 기꺼이 감수하라. 87년생 이미 모든 것이 다 끝난 판세이니 아무런 소용이 없다. 99년생 오랫동안 고민해 왔던 난제들이 하나하나 해결 될 것이니라. 행운의 숫자 : 36, 97</p>	<p>33년생 불행하다면 정리해버려도 무리가 없다. 45년생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이 발전된 양상으로 이끈다. 57년생 집사는 별로 없었지만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69년생 여태까지 진행해 오던 바의 방향이 행운과 일치하겠다. 81년생 안전한 떨쳐버리지 않는다면 골칫거리로 남는다. 93년생 본격적으로 실행해야 할 단계이다. 행운의 숫자 : 39, 57</p>
<p>40년생 계획대로라면 양호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 52년생 행하다보면 다른 일에 소홀할 수도 있다. 64년생 편견에 사로잡힌다면 오류를 범하기에 충분하다. 76년생 목적이 분명해야만 명쾌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88년생 마음만 먹으면 능히 해결 될 수도 있는 마당이다. 00년생 다시 한 번 고려한 후에 행하는 것이 좋다. 행운의 숫자 : 00, 69</p>	<p>34년생 불행하더라도 일어날 수도 있는 마당이다. 46년생 사소한 점이 위함으로 비화 될 수도 있다. 58년생 한 번에 한 정된 것이니 확대 해석할 필요 없다. 70년생 전체를 아우르면서 일일이 따져보면 결과적으로 거의 같다. 82년생 중대사와 연결 될 소지가 있다고 본다. 94년생 예정 되었던 것은 차질 없이 들어오겠다. 행운의 숫자 : 05, 70</p>
<p>41년생 점에안 이해관계로 인해 민감해지겠다. 53년생 지금 실행하지 않으면 후회, 막힐 것이다. 65년생 정성과 속씨에 따라서 결과가 판이하리라. 77년생 의외의 현상이 나타나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89년생 교체 해 주어야만 새로운 국면을 열어가 수 있다. 01년생 열린 마음이 있어야 새로운 국면을 접하는 법이다. 행운의 숫자 : 49, 51</p>	<p>35년생 마음에 들지 않지만 억지로 따라가야 하는 입장이다. 47년생 기미가 보이거든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59년생 진땀을 흘려야 생길 것이니 단단히 각오하고 담배야만 한다. 71년생 고질적인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긴다. 83년생 강력하게 대처해야 할 형국에 놓여있다. 95년생 조용히 덮어두는 것이 좋다. 행운의 숫자 : 41, 82</p>